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맞이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인 1조 1,663억 원을 기록했다. 크게 증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더불어 전체 쇠고기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 1~11월 전체 쇠고기 수입물량은 35만 8,984톤이었다. 12월 수입물량까지 더하면 사상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연간 수입규모 36만 6,390톤을 다시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과 더불어 호주산이나 유럽산도 점차 국내 시장 공세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이점의 생김다. 그 반면, 어쩔 수 없이 불안해지는

식탁 안전에 좀 더 신중하게 소비해야 한다는 심화된 숙제를 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 쇠고기 등급기준의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 일단 오랜 기간 이어온 소 등급기준 개편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존중해 개선했다는 것이 반갑다.

바뀐 등급기준을 보면 육량 등급은 암-수-거세와 같은 성별이나 한우-육우-젓소 등 품종별로 육량등급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고, 등급 결정체계를 근내지방도 위주 평가에서 근내지방도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마블링을 높이기 위해 길어진 소 사육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못 먹는 지방 생산을 줄여 한우의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아울러 품질 기준을

다양화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요구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기준은 판매시점의 맛(연도) 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연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부위별, 용도별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등급표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쇠고기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물복지와 영양성분 등 소비자 관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마블링 이슈와 직결됐던 근내지방도 위주 기준의 개선, 그러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기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마블링 이슈는 뜨거운 감자였다. 동물성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과 적당한 지방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 여기에 오히려 지방이 더 몸에 좋다는 '저탄고지(저탄수화물 고지방)' 주장까지 더해져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여기에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생산성 저하로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은 선뜻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

이 과정에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수입산의 시장 비중이 높아져 우리 쇠고기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점차 파고를 높이고 있는 수입육의 공세 속에 우리 식량주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에 맞서 우리 밥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등급제도는 그동안 마블링 중심의 고급육에 기반을 두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화 하며 한우산업 발전과 유통의 지표라는 제 몫을 다해왔다. 지난 25년 사이 소비 트렌드가 변하며 시장 여건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상황은 등급제가 처음 실시된 1993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개방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육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소비자는 누구나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의 상품을 원한다. 우리 쇠고기의 품질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가격 지불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준 개편이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양화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식탁 안전을 지키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쇠고기 등급기준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싶다. 

